

‘금품 요구 논란’ 장정석 단장 해임... KIA ‘초비상’

TIGERS 2023시즌 개막을 코앞에 두고 KIA 타이거즈가 대형 악재를 만났다. 지난 시즌부터 KIA를 이끌었던 장정석 단장이 ‘금품 요구’ 논란으로 해임됐다.

KIA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정석 단장을 품위 손상 행위로 해임했다.

최근 최준영 대표이사에게 지난 시즌 중반 장정석 단장이 박동원(LG)과의 다년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구단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왔다.

외국인 선수 확인 차 미국 출장 중이었던 장정석은 급히 귀국했고, 이날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됐다.

구단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소속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라는 그릇된 처신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또 KIA는 사과문을 내고 “최근 불거진 장정석 단장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KIA 타이거즈 팬 여러

품위 손상 행위로 징계... 2023시즌 개막 앞두고 대형 악재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분은 물론,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며 “개막을 앞두고 있는 KBO리그 전체에 누를 끼치지 못 하고 모든 구성원분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KIA는 즉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금품 요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개최, 곧바로 장정석 단장을 해임 조치했다”며 “구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구단 임직원 및 선수단의 준법 교육에 더욱 힘쓰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고 KIA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구단이 사안을 감안해 즉각적인 대처에 나섰다. 4월 1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만큼 KIA는 날벼락을 맞았다.

선수단 분위기 수습이 우선 과제가 된 가운데 장정석 단장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2군 선진 시스템 구축 작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쏠린다.

지난해 호크아이 시스템을 도입한 KIA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육성·트레이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이어왔다. 올 시즌을 앞두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를 메이저리그에서 사용하는 홈으로 교체했고, 함평-KIA 챌린저스 필드 부구장도 선수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천연잔디 구장으로 재정비하고 새 시즌을 준비

하고 있는 상황.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했지만 KIA 관계자는 “실무진을 중심으로 기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A는 지난해 4월 키움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박동원과 인연을 맺었다.

스토브리그에서부터 박동원을 눈독 들였던 KIA는 키움에 내야수 김태진과 현금 10억원, 2023년 신인 2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비FA’ 박동원을 트레이드 했다.

KIA가 2라운드 지명권까지 내주면서 영입을 했고, 2022시즌 최종전에서는 박동원이 직접 구단에 요청해 2023신인 환영식에 참가해 팬들 앞에서 “개성고 2라운드 포수 박동원입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해 잔류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박동원이 총액 65억원(계약금 20억원, 연봉 총액 45억원)에 LG로 이적하면서 8개월 만에 KIA와 동행이 마무리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장정석

엄지성, U-22 대회 부상 교체 ‘아찔’

SNS에 사진 올리고 “괜찮아요”

광주FC 엄지성이 ‘십년감수’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2 남자축구대표팀은 29일 새벽 카타르 도하 알두하일 스타디움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2023 도하컵 U-22 친선대회 결승전을 치렀다.

아시아 10개국이 출전한 이번 친선대회에서 한국은 23일 오만과의 대회 첫 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둔 뒤, 26일 이라크전도 1-0 승리로 장식했다. 그리고 2승을 거둔 한국은 역시 2승을 올린 UAE와 1-2위 결정전에 나섰다.

1차전 오만전에서 1골 1도움 활약을 했던 광주 엄지성은 2차전 결장 뒤 대회 마지막 경기에 다시 선발로 출장했지만, 전반 43분 만에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상대 골문 앞에서 공중볼을 다루던 엄지성이 상대 선수의 머리에 열 머리를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고 그대로 그라운드로 떨어진 것이다.

한 동안 경기가 중단됐고 엄지성은 응급 조치 뒤 의식을 되찾기는 했지만 목을 고정한 채 들것에 실려나왔다.

한국은 엄지성을 대신해 홍시후(인천)를 투입해 경기를 이어갔다.

결과는 안재준(부천FC)의 선제골에 이은 홍시후의 멀티골을 앞세운 한국의 3-0 승리.

한국은 3경기 7득점, 무실점 행진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엄지성의 부상 장면은 아찔했다.

이날 부상으로 엄지성은 곧장 귀국길에 오른 동료들과 달리 병원에서 하루 안정을 취한 뒤 30일 한국으로 돌아온다. 총괄과정에서 귀가 늦어지면서 병함을 하기도 했다.

엄지성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 상태 괜찮아요.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 드리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는 글과 함께 머리에 붕대를 한 채 병상에 누워 엄지를 들어보이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SNS를 통해 “괜찮다”고 몸상태를 전했지만 광주FC에는 비상이 걸렸다.

A매치 휴식기를 보냈던 광주는 4월 1일 오후 4



저 상태 괜찮아요...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시 30분 수원FC와 K리그1 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앞선 4라운드 인천전에서 엄지성의 1골 1도움의 활약을 더해 5-0 대승을 이뤘다. 하지만 이번 부상으로 엄지성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인천을 상대로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아사니도 알바니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A매치 일정을 소화한 만큼 공격의 두 핵심 선수들의 활약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아사니는 지난 28일 열린 폴란드와의 유로 2024 예선을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우루과이의 평가전에서 이강인이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부터, 이강인이다

축구대표팀 우루과이에 1-2 패 이강인, 특급 활약 존재감 과시

벤투호의 ‘빌드업 축구’에서 황인범(올림피아코스)이 ‘황태자’로 자리매김했다면 베일을 벗은 클린스만호에는 일단 ‘2001년생 듀오’ 이강인(마요르카), 오현규(셀틱)의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8일 우루과이전을 끝으로 3월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2연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콜롬비아(2-2 무), 우루과이(1-2 패)를 차례로 상대하면서 새 사령탑이 입히고자 하는 색깔도 일부 드러났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안정적으로 공을 지키며 ‘주도권’을 쥐는 데 중점을 뒀다면 클린스만 감독은 보다 공격 속도를 높이고 선수들의 전진성을 강조하는 ‘공격 축구’의 단면을 팬들에게 보여줬다.

콜롬비아전(9-8), 우루과이전(10-8) 모두 상대보다 많은 슈팅을 기록했고 점유율도 54%-46%, 68%-32%로 우위였다.

양 측면에서는 과감한 크로스가 찾아졌고, 공격수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진을 황급히 뒷걸음치게 만드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

클린스만 감독이 2선의 파괴력과 영향력이 배가되도록 ‘자유’를 보장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콜롬비아전 손흥민(토트넘)이 ‘프리롤’을 받은 데서 잘 드러난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골대가 어딘지 확인하고 득점만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프리롤을 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우루과이전에서 이 역할을 수행한 건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마요르카)이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상대에 게 많은 어려움을 줬다. 파울만이 그를 막을 수 있었다”고 극찬하며 앞으로 중용 의사를 내비쳤다.

최전방에서는 누가 세계적 공격수 출신인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을 받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주전 경쟁 중인 세 스트라이커 중 방장 골망을 흔들어 본 건 ‘신예’ 오현규(셀틱)다.

두 경기 모두 교체 투입된 오현규는 우루과이전 후반 39분 이강인의 크로스를 오른발 타닝 슈트로 연결해 홈팬들을 열광케 했지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비디오 판독(VAR) 결과가 나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조규성(전북), 황의조(서울)는 위협적이거나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연합뉴스

FIFA 랭킹 42위 스코틀랜드

39년 만에 ‘무적함대’ 스페인 이겼다

맥토미네이 멀티골 2-0 승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2위 스코틀랜드가 스코트 맥토미네이(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멀티골을 앞세워 39년 만에 ‘무적함대’ 스페인(랭킹 10위)을 완파했다.

스코틀랜드는 29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헨던 파크에서 열린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조별 예선 A조 2차전에서 2-0으로 이겼다.

지난 25일 키프로스와의 1차전에서 3-0 패승을 거둔 스코틀랜드는 2연승으로 조 1위에 올랐다.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이 빠

진 노르웨이를 상대로 1차전에서 3-0 승리를 따냈던 스페인은 스코틀랜드에 밀리기 잡혀 1승 1패로 조 2위에 자리했다.

축구 기록 매체 옵타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는 1984년 11월 월드컵 유럽 예선 경기(3-1 승) 이후 약 39년 만에 스페인을 상대로 승리를 따냈다.

스코틀랜드가 스페인을 꺾은 건 1957년과 1984년에 이어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역사적인 승리에 앞장선 선수는 맥토미네이였다.

키프로스와의 1차전에서 혼자 2골을 넣은 맥토미네이는 이날 경기에서도 전반 7분과 후반 6분 골망을 흔들며 2경기 연속 멀티 골을 완성했다.

/연합뉴스